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민 정 임¹⁾

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 세 영²⁾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3세 및 5세 유아 238명으로 구성되었고, 어머니의 심리통제, 행동통제, 유아의 문제행동을 어머니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일반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 및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t*-test,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만 5세 유아의 어머니가 만 3세 유아의 어머니 보다 심리통제를 많이 사용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공격성, 주의집중 문제, 우울/불안, 위축, 두려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5세 보다 만 3세 어머니의 심리통제의 영향력이 모든 문제행동에서 더 높아 만 3세아가 만 5세아 보다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행동통제는 만 3세의 경우 공격성,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킨 반면 행동통제는 공격성을 제외한 위축과 두려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 효과는 만 5세의 우울/불안에, 만 3세의 경우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심리통제, 행동통제, 문제행동, 유아

* “이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2)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Email : evenhow@chungbuk.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유아기 문제행동이 다양화되고 질적으로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가고 있어(김연, 2007), 소아정신과에나 아동상담기관을 찾는 내담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치료를 의뢰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황미영, 2007).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발현시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행동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으로 인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동기, 청소년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이상정, 2009; Tremblay, 2000) 사회적 관계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유아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예방하고 긍정적인 행동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Khaleque & Rohner, 2002).

유아의 문제행동은 행동장애가 나타나는 행동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분류하는 기준과 용어는 학자마다 다르다(이선주, 2007). Achenbach(1991)은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에서 아동이 주로 나타내는 문제행동의 유형을 광범위한 범위의 요인과 협소한 범위의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광범위한 범위의 요인으로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이 추출되었고, 협소한 범위의 요인으로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미성숙행동, 과잉행동, 정신분열증, 비행 공격행동, 성문제 등 9가지가 추출되었다. 김연(2007)은 이에 유아의 문제행동을 위축 문제, 우울/불안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문제, 공격성문제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이선주(2007)는 공격성행동, 주의집중문제, 비행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과 우울/불안, 위축, 두려움, 성에 대한 내면적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공격성, 주의집중 문제, 우울/불안, 위축, 두려움 문제행동(이선주, 2007)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은 자신이나 상대방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가하는 관찰 가능한 행동과 더불어 의도나 사회적인 조건 및 가치 등의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김희영, 2010). 특히, 남아의 2세 전후로 보이는 공격적인 행동문제는 매우 안정적인 경향이 있어,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임을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Smith, Calkins, Keane, Anastopoulos, & Shelton, 2004).

둘째, 주의집중 문제는 주의집중행동을 지속시키지 못하며 충동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손옥련, 2003).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주의 통제능력이 발달하는데 이를 잘 발달시키지 못하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Campbell & Ewing, 1990).

셋째,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 상태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포함하는 정서적,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고(김혜인, 2010), 불안은 공포나 불안을 주는 자극이나 상황으로 위협이나 위험을 자각하고 염려나 긴장, 불편함 등의 기분(권기정, 2008)을 의미한다. 유아기의 우울과 불안은 사회적 위축,

짜증, 악몽, 양육자로부터의 격리에 대한 지나친 불안과 같은 발달적 퇴보, 언어기술의 상실 등(Hammen & Rudolph, 1996)과 상관이 있고,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 발달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유아의 정서적인 안정에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이선환, 2007).

넷째, 위축은 일시적인 긴장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습관화 되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대인관계에서 어떤 원인에 의하여 주변 환경과의 모든 접촉에서 움츠려 들고 적절한 관계를 형성 유지시키기 어려운 행동이다(박옥영, 2001). 이러한 유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지 못하고 사회적 접근 능력이 떨어짐에 집단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으므로, 조롱이나 놀림의 대상이 된다(Kauffman, 2001).

다섯째, 두려움은 기본적으로는 위해에서 벗어나거나 자기방어를 하는 행동에 뒤따르는 감정의 동요를 말하지만 반드시 위해의 경우에만 따른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본능적·생득적·직관적인 두려움이 존재한다(한국유아교육학회, 1996). 이는 예측할 수 있는 고통이나 고난,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상황과 관련한 불편함, 걱정 및 긴장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면화의 주요 요인으로 유아가 가장 많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중 하나이다(Saolvey & Sluyter, 1997).

이러한 유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관련 요인에는 유아 개인적인 요인과 가정환경적인 요인이 있으며, 그 중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맺게 되는 어머니의 자녀양육방식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가

정환경적 요인으로 알려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김미정, 2010; 김현주, 2008; 박혜미, 2010). 지지와 통제는 양육방식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차원으로 연구되어왔다(김인숙, 2010; 김현주, 2008; 박혜미, 2010; 임민택, 2006; 채영문 2009). 지지는 애정, 온정, 수용, 반응적 행동 등 단일구성요소로서 아동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된 반면에 통제는 훈육 죄의식 유발, 요구, 강압, 애정철회, 감독, 처벌, 거부, 제한 등 복잡한 구성요소로서 다양한 차원으로 개념화되었다(Barber, 2002). 따라서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일관성이 낮은 경향이 있어(Barber, Olsen, & Shagle, 1994),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통제행동을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로 구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arber, 1996).

그 중 심리통제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1990년대 이래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심리통제는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자율성을 통제하려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정의된다. 그 행동들에는 언어적 표현 억제, 감정 무력화 개인적 공격, 죄의식 심어주기, 사랑의 철회, 불일치적인 정서적 표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심리통제를 과보호, 가족 구성원이 과도하게 밀착되어 있는 것, 자율성지지 부족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심리통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언어적 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런 부모들은 아동의 자기 발견과 표현을 억압한다. 두 번째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 거부

와 적대적인 무관심, 감정적 처벌, 아동에 대한 개인적 공격, 불일치적인 정서적 행동 등이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행동들은 아동과 부모간의 심리 사회적 경계, 독립적인 자기감과 정체성 발달을 방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세 번째는 아동의 행동을 부모에게 맞추려고 하거나 죄의식 심어주기, 불안 심어주기 사랑의 철회와 같은 아동-부모의 관계를 조작하는 전술적인 양육 전략으로 부모와 아동 간의 정서적 균형을 조정하려고 시도한다(Barber & Harmon, 2002).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타인의 정서적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늘어나며(Berk, 2006), 이에 따라 어머니가 심리통제와 같은 정서적 행동을 보일 때 유아는 그 의미를 해석하고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죄의식 심어주기나 사랑의 철회와 같은 부정적 정서적 행동일 때 이를 인지한 유아의 반응은 부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정서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인지가 성장하는 시점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통제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청소년기(이은경, 박성연, 2011)나 주로 아동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아동기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중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이 이러한 행동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전숙영, 2007; 정윤주, 2004). 김희영(2008)의 연구에 의하면 성취

지향적 심리통제는 아동의 우울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죄의식을 유발하는 심리통제나 애정철회도 아동의 우울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김희영(2010)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높을수록 아동은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는데 여아의 반응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남아의 경우는 관계적 공격성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선영(2010)은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여 주었다. 즉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수행, 대인 불안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부와 모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본 김송아(200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김인숙(2010)은 어머니의 심리통제의 요인을 포함한 통제형 양육요인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남아, 여아에게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요인이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쳐 공격성에 간접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만 4세, 5세를 대상으로 한 권기정(2008)은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과잉행동과 공격행동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아의 경우 모든 문제 영역(과잉행동, 공격행동, 불안, 위축, 미성숙)에서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희(2001)는 어머니가 거부형으로 유아를 통제하는 경우 유아의 직접적 공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인숙(2010)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방식은 유아의 대인관계 및 외현화 공격성에 정서조절능력을 통하여 간접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유아나 아동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을 시사해 준다. 반면, 강혜경(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자신이나 교사가 지각한 애정철회적 훈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선행연구 간의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알 수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머니가 유아를 통제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행동통제가 있다. 이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려는 부모의 시도로, 자녀의 생활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을 말하며, 부모의 지도·감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행동통제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역할, 규칙, 적절한 제한을 제공하는 것으로, 심리통제가 과도한 통제의 사용으로 발달을 저해하는 반면에 행동통제는 필수적인 감독과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심리적 발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고 여겨진다(Gomez, Gomez, Demello, & Tallent, 2001). 또한 부모감독으로 조작화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부모감독은 자녀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자녀가 있는 장소, 하는 활동, 함께하는 친구에 대한 부모의 지식을 의미한다(Stattin & Kerr, 2000).

어머니의 행동통제와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또한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이미정(2010)은 아동이 부

모의 행동통제를 자신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부모의 행동적 통제가 높을수록 아동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게 삶을 스스로 주도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였다. 김희영(2010)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반대로 행동 통제는 아동의 공격성을 낮추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고, 김희화(2003)는 부모의 행동통제를 받은 아동은 공격성을 포함한 비행행동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Ramsden과 Hubbard(2002)은 주로 과잉 보호적 양육을 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게 행동통제를 많이 사용하며 이로 인해 공격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아동이 어머니의 행동통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행동통제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만 4, 5세 유아의 공격성을 살펴본 김정희(200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귀납형의 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 거부형이나 강압형의 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 보다 유아의 공격성이 낮았다. 즉 어머니의 귀납적 통제유형은 유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바람직한 통제유형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김인숙(2010)은 어머니의 행동통제의 의미를 포함한 온정형 양육방식이 남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쳐 남아의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하였다. 허태희(2008)는 어머니의 애정성이 낮을수록 위축, 주의집중, 공격성, 내면화 문제, 외현화문제, 총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행동통제는 지지행동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사회 심리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비행, 공격성 등과 같은 행동적 문제를 덜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rber, Stoltz, & Olsen, 2005; Gray & Steinberg, 1999; Pettit et al., 2001).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유아나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됨을 시사해 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동기, 유아기 모두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문제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통제는 문제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의 연구 대부분이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연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알아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통제 차원을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로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유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권기정(2008)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만으로 이루어져,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 및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 연구가 드물다. 특히 어릴수록 연령에 따라 발달의 격차가 크므로 만 3세와 만 5세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미치는 영향도 서로 다를 것으로 사료 된다. 그 중에서도 심리통제의 경우, 유아가 상대방의 정서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Berk(2006)에 의하면 3-4세에 비해 5-6세는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더 발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세와 5세가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행동통제를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며 이로부터 받는 영향 또한 다를 것으로 예측하고, 3세 유아와 5세 유아를 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 및 유아의 문제행동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1.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2.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주의집중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3.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4.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5.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충남 천안시와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의 사립유치원과 4개의 어린이집(민간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3세, 만 5세 유아의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 질문지는 유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내져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고 그 질문지를 유아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다시 수거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연구도구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공립유치원 1곳의 원생 어머니 29명을 대상으로 2010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완성된 질문지로 2010년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3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44부(81.3%)가 회수되었으며,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 6부를 제외한 238부(79.3%)를 연구에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유아의 성은 남아가 127명(53.4%), 여아가 111명(46.6%)이고, 연령은 만 3세가 114명(47.9%), 만 5세가 124명(52.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4.8세,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7.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하가 64명(26.9%), 대졸이상이 174명(73.1%)이며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50명(21%), 대졸이상이 188명(79%)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115명(48.3%)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 41명(17.2%), 일반사무직 24명(10.1%), 공무원 23명(9.7%), 판매서비스 22명(9.2%), 생산기술/노무 13명(5.5%) 순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일반사무직 72명(30.3%)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47명(19.7%), 판매서비스 46명(19.3%), 생산기술/노무 42명(17.6%), 공무원 30명(12.7%), 무직 1명(4%)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어머니의 심리통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를 전숙영(2007)이 번안하여 수정한 것을 이를 일부 수정한 권기정(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심리통제는 어머니가 유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유아의 개인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심리적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심리 중 통제하는 정도를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문항에는 “나는 아이의 일에 자주 참견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의 값은 .8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행동통제

어머니의 행동통제 척도는 PDI(The Parenting Dimension Inventory)를 변안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 하여 진순옥(2003)이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행동통제는 어머니가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유아의 잘못된 행동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척도는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행동을 통제하는 정도를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4문항으로 이 중 요인 부하량이 낮은 1문항(요인부하량 .6 이하)을 제외하고 총 3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문항에는 “나는 아이가 잘못하면 아이에게 왜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유를 물어 보았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의 값은 .84로 나타났다.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은 교사용 아동행동 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 Teacher Report Form: CBCL-TRE)를 황혜신과 황혜정(2001)이

변안 한 것을 근거하여 이선주(2007)의 논문에서 수록된 질문지를 토대로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0문항으로 공격성(16문항), 주의집중문제(10문항), 우울/불안(11문항), 위축(10문항), 두려움(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려움 3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낮은 1문항(요인부하량 .6 이하)을 제외하고 총 49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문항에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와 “성미가 급하고 제멋대로 안 되면 데굴데굴 구른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의 값은 .86(공격성), .87(주의집중문제), .81(우울/불안), .76(위축), .64(두려움)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자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질문지의 타당도와 문항 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 및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test를 실시하였으며,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 및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 및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유아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12$, $p<.01$). 즉 만 5세($M=2.09$) 유아의 어머니가 만 3세($M=1.93$) 유아의 어머니 보다 심리통제를 높게 나타냈다. 그러나 어머니의 행동통제, 유아의 공격성, 주의집중 문제, 우울/불안, 위축, 두려움은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산팽창계수인 VIF값을 살펴본 결과 만 3세는 1.45, 만 5세는 1.10에서 1.11로 3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령별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3과 같다. Model 1에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영향을 살펴보고, Model 2에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만 3세의 경우 Model 1에서는 심리통제($\beta=.63$, $p<.001$)와 행동통제($\beta=.16$, $p<.05$)가 유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49%였다. Model 2에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64$,

표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 및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

변인		만 3세 (N=114)	만 5세 (N=124)	<i>t</i>
		<i>M(SD)</i>	<i>M(SD)</i>	
어머니	심리통제	1.93(.38)	2.09(.38)	-3.12**
	행동통제	3.10(.72)	3.23(.59)	-1.45
유아의 문제행동	공격성	1.84(.47)	1.79(.35)	.90
	주의집중 문제	1.71(.53)	1.66(.46)	.79
	우울/불안	1.84(.48)	1.93(.43)	-1.57
	위축	1.49(.36)	1.46(.34)	.47
	두려움	1.79(.74)	1.87(.71)	-.85

** $p<.01$

표 2.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 및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

※ 만 3세(만 5세)

변인		유아의 문제행동				
		공격성	주의집중문제	우울/불안	위축	두려움
어머니	심리통제	.68*** (.45***)	.57*** (.34***)	.53*** (.43***)	.46*** (.21*)	.37*** (.29**)
	행동통제	.36*** (.09)	.19 (-.01)	.25** (-.01*)	-.02 (-.24**)	.07 (-.19*)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유아의 공격성 (만 3세)		유아의 공격성 (만 5세)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어머니	심리통제	.63***	.64***	.45***	.45***
	행동통제	.16*	.20*	.02	-.01
	심리통제×행동통제		.08		-.09
	R^2	.49	.49	.21	.21
	F	53.20***	35.71***	15.74***	10.85**

* $p < .05$, ** $p < .01$, *** $p < .001$

$p < .001$)와 행동통제($\beta = .20$, $p < .05$)가 유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49%였다.

만 5세의 경우 Model 1에서는 심리통제($\beta = .45$, $p < .001$)가 유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1%였다. Model 2에서도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 = .45$, $p < .001$)가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1%였다.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주의집중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령별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주의집중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표 4와 같다. Model 1에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영향을 살펴보고, Model 2에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만 3세의 경우 Model 1에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 = .58$, $p < .001$)가 유아의 주의집중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32%였다. Model 2에서도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 = .57$, $p < .001$)가

표 4.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주의집중 문제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유아의 주의집중문제 (만 3세)		유아의 주의집중문제 (만 5세)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어머니	심리통제	.58***	.57***	.35***	.35***
	행동통제	-.04	-.05	-.07	-.08
	심리통제×행동통제		-.03		-.04
	R^2	.32	.32	.12	.12
	F	26.23***	17.38***	8.43***	5.65**

*** $p < .001$

유아의 주의집중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32%였다.

만 5세의 경우 Model 1에서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 = .35, p < .001$)가 유아의 주의집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2%였다. Model 2에서도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 = .35, p < .001$)가 유아의 주의집중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2%였다.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령별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와 같다. Model 1에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영향을 살펴보았고, Model 2에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만 3세의 경우 Model 1에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 = .50, p < .001$)가 유아의 우울/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9%였다. Model 2에서도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 = .50, p < .001$)가 유아의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9%였다.

만 5세의 경우 Model 1에서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 = .44, p < .001$)가 유아의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9%였다. Model 2에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 = .43, p < .001$)가 유아의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효과($\beta = -.18, p < .05$)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2%였다.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효과의 투입으로 모델 설명력이 3% 증가하였다.

만 5세 유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어머니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1과 같다.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높아질수록 유아의 우울/불안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경향

표 5.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유아의 우울/불안 (만 3세)		유아의 우울/불안 (만 5세)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어머니	심리통제	.50***	.50***	.44***	.43***
	행동통제	.09	-.07	-.08	-.13
	심리통제×행동통제		-.05		-.18*
	R^2	.29	.29	.19	.22
	F	22.60***	15.03***	14.36***	1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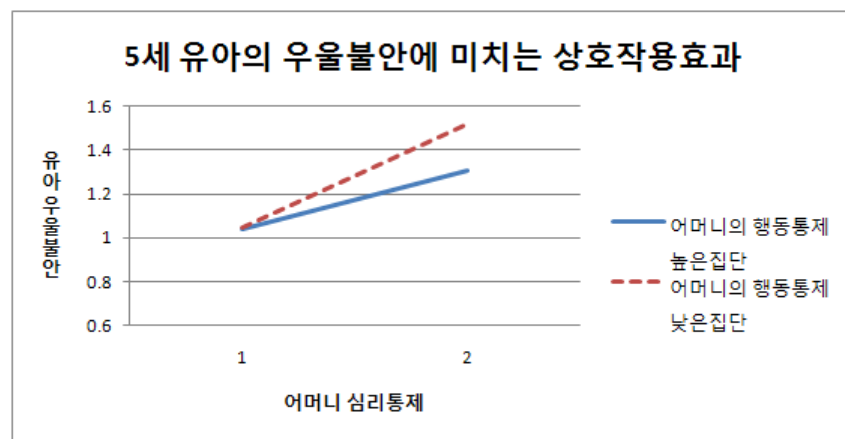
* $p < .05$, *** $p < .001$ 

그림 1.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 효과

은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낮은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즉,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낮을 경우 행동통제에 따른 유아의 우울/불안은 큰 차이가 없으나,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높은 경우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낮을수록 유아가 더 우울/불안하였다.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위축에 미치는 영향

연령별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표 6과 같다. Model 1에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영향을 살펴보고, Model 2에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만 3세의 경우 Model 1에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 = .51$, $p < .001$)와 행동통제($\beta = -.17$, $p < .05$)가 유아의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4%였다. Model 2에서도 어머니의 심리통제(β

표 6.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위축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유아의 위축 (만 3세)		유아의 위축 (만 5세)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어머니	심리통제	.51***	.49***	.25**	.24**
	행동통제	-.17*	-.29**	-.28**	-.32***
	심리통제×행동통제		-.22*		-.16
	R^2	.24	.27	.12	.14
	F	17.17***	13.47***	8.07**	6.58***

* $p < .05$, ** $p < .01$, *** $p < .001$

$\beta = .49$, $p < .001$)와 행동통제($\beta = -.29$, $p < .01$)가 유아의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효과($\beta = -.22$, $p < .05$) 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설명력은 27%였다.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효과의 투입으로 모델 설명력이 3% 증가 하였다.

만 5세의 경우 Model 1에서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 = .25$, $p < .01$)와 행동통제($\beta = -.28$, $p < .01$)가 유아의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2%였다. Model 2에서도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 = .24$, $p < .01$)와 행동통제($\beta = -.32$, $p < .001$)가 유아의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4%였다.

만 3세 유아의 위축에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2와 같다.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높아질수록 유아의 위축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낮은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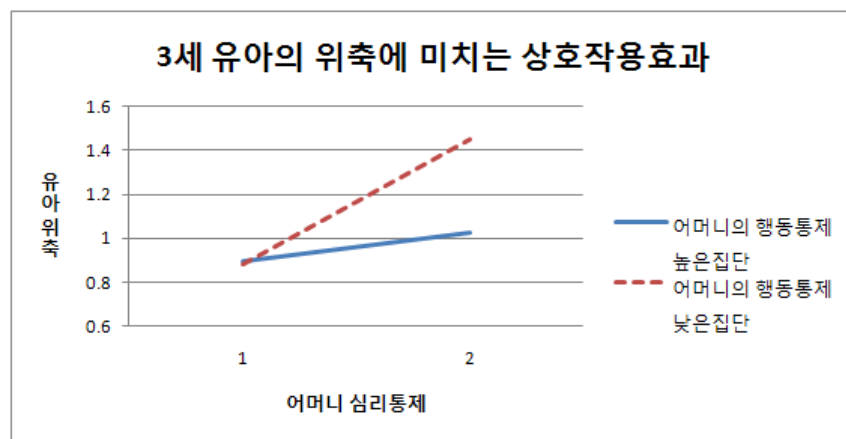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 효과

즉,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낮을 경우 행동통제에 따른 유아의 위축은 큰 차이가 없으나,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높을 경우,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낮을수록 유아가 더 위축 되었다.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연령별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표 7과 같다. Model 1에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영향을 살펴보고, Model 2에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만 3세의 경우 Model 1에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38, p<.001$)가 유아의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4%였다. Model 2에서도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38, p<.001$)가 유아의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모델의 설명력은 14%였다.

만 5세의 경우 Model 1에서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33, p<.001$)와 행동통제($\beta=-.23, p<.01$)

가 유아의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4%였다. Model 2에서도 어머니의 심리통제($\beta=.32, p<.001$)와 행동통제($\beta=-.26, p<.01$)가 유아의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모델의 설명력은 14%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 5세 유아의 어머니가 만 3세 유아의 어머니 보다 심리통제를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해석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된다. 3세는 발달적으로 2세아와 4·5세아의 특징을 함께 나타내는 과도

표 7.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유아의 두려움 (만 3세)		유아의 두려움 (만 5세)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어머니	심리통제	.38***	.38***	.33***	.32***
	행동통제	-.05	-.05	-.23**	-.26**
	심리통제×행동통제		-.01		-.08
R^2		.14	.14	.14	.14
F		8.75***	5.78**	9.69***	6.70***

* $p<.05$, ** $p<.01$, *** $p<.001$

기적 시기로(임은주, 2010), 3세와 5세는 모두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받고, 인식하고 이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Berk(2006)에 의하면, 3-4세아 보다 5-6세아가 상대방의 정서적 반응을 더 잘 해석하고, 예측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높다. 즉, 3세아보다 5세아가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을 더 잘 해석하고 예측하므로, 평소에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5세아의 정서반응에 대한 해석력과 예측력을 경험한 어머니가 5세아에게 심리통제가 더 효과 있을 것임을 짐작하고 3세아보다 심리통제를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유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 3세의 경우 심리통제와 행동통제 모두인 것으로 나타났고, 만 5세의 경우 심리통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행동통제는 공격성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김희영, 2010; 김희화, 2003)와 부분적으로만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만 3세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선행연구가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고하여 해석해야 할 측면인 것으로 사료 된다.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공격성을 높이고 행동통제는 공격성을 낮추었으나,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행동통제가 유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유아의 공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또한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부적 상관을 가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만 3세의 경우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유아기 행동통제의 유아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제기 해준다.

한편 심리통제의 영향은 만 5세보다 만 3세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유형의 문제행동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의 심리통제의 영향으로부터 취약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의존성이 더 크고, 이는 곧 어머니의 정서적 통제 및 공격에 더 쉽게 상처입고,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의 주의집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 3세, 만 5세 모두 어머니의 심리통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만 5세보다 만 3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3세는 여러 가지 정서가 분화되는 시기로, 박찬옥(2002)은 이 시기의 유아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표현하고 부정과 반항의 표시가 많으며 특히 통제를 받으면 화를 잘 내고 변덕을 부린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동반하는 정서발달의 특징으로 인해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5세아보다 3세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쳐 주의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유아의 문제행동 중 주의집중과 어머니의 심리통제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유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 3세, 만 5세 모두 어머니의 심리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우울/불안이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정윤주(2004)의 연구결과, 어머니가 심리통제를 많이 할수록 우울을 더 많이 보인다는 김희영(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만 5세의 경우 Model 2에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효과를 투입한 결과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높아질수록 유아의 우울/불안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낮은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즉,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높은 경우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낮을수록 유아의 우울/불안하였다. 이는 유아의 어머니의 심리통제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지하였지만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없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모가 원하는 대처행동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몰라서 더 우울하고 불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유아의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 3세, 만 5세 모두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만 5세 보다 만 3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만 3세의 경우 Model 2에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효과를 투입한 결과 유아의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높아질수록 유아의 위축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낮은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낮을 경우 행동통제에 따른

유아의 위축은 큰 차이가 없으나,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높을 경우,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낮을수록 유아의 위축 되었다. 이는 불안과 같이 유아의 어머니의 심리통제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지하였지만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없을 때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대처행동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몰라서 불안하고 위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상호작용효과가 만 5세가 아닌 만 3세에서 나타난 점이 우울/불안과 다른 점이었다.

여섯째, 유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 3세인 경우 어머니의 심리통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만 5세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 모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만 5세 보다 만 3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만 3세의 유아는 만 5세 유아보다 어머니에게 더 의존적인 경향이 있어 어머니가 심리통제를 할 경우 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만 5세아에게는 행동통제가 많을수록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통제가 아닌 행동통제의 경우 부분적으로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공격성, 주의집중 문제, 우울/불안, 위축, 두려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5세 보다 만 3세 어머니의 심리통제의 영향력이 모든 문제행동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행동통제는 만 3세의 경우 공격성,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의 상호작용 효과는 만 5세의 우울/불안에,

만 3세의 경우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3세의 경우 만 5세 보다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취약한 것을 알 수 있고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부정적 효과를 불러 일으켰고 행동통제는 공격성을 제외한 위축과 두려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어머니의 통제 차원을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로 개념적으로 나누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아동기에 비해 유아기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어머니의 통제를 심리 통제와 행동 통제로 구분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연령에 따른 특히, 만 3세와 만 5세를 비교하여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연령별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힘으로써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탐색하였고,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 천안시와 경기도 안성시의 유아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국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 즉,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와의 관계만을 살펴 보았는데 이를 매개하는 유아 개인 내적인 요인을 추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각각 하나의 변인으로 살펴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하위변인으로 세분화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의 각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다섯째,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모든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어머니 변인들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에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아버지의 영향과 어머니의 영향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를 측정함에 있어 어머니가 기록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는데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행동통제가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경 (2003). 유아의 성별 및 연령과 어머니의 훈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기정 (2008).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유아의 행

- 동문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정 (2010).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송아 (2008).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 연 (2007). 유아의 기질 및 심리적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인숙 (2010). 유아의 애착, 어머니의 양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희 (2001). 가정환경 요인 및 어머니의 통제 유형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주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 및 공격성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인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영 (2008).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가 남, 여 아동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영 (2010). 어머니의 통제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화 (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 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 박옥영 (2001). 심성계발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한 위축·고립아의 사회적응력 신장방안. 현장특수교육연구보고서.
- 박찬옥 (2002). 유아놀이지도. 서울: 학문사.
- 박혜미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남녀 유아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옥련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행동문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정 (2010). 부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정 (2009).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유아의 정서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영 (2010).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주 (2007). 유아의 문제행동에 따른 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환 (2007).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경, 박성연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인간

- 발달연구, 18(4), 101-123.
- 임민택 (2006). 가정환경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은주 (2010). 만 3세 또래관계 형성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분석: 2000년~2009년: 유아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5(6), 101-111.
- 정윤주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성과 또래수용도의 중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진순옥 (200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영문 (2009). 부부의 애착유형과 자녀양육방식의 결합 형태에 따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유아교육학회 (1996). 유아교육사전 용어편.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 허태희 (2008).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미영 (2007). 발달·행동·정서장애 아동 놀이 표현 형태의 임상적 프로파일.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신, 황혜정 (2001). 유아의 인지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3), 25-34.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2002). *Intrusive parent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 Harmon, E.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arber, B. K., Stolze,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method, and cultur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 1-137.
- Berk, L. E. (2006). *Child Development* (7th ed.). Pearson Education, INC.
- Campbell, S B., & Ewing, L. J. (1990). Follow-up of hard to manage preschoolers: Adjustment at age 9 and predictors of continu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 Psychiatry*, 31, 871-890.
- Gomez, R., Gomez, A., Demello, L., & Tallent, R. (2001). Perceived maternal control and support: Effects on hostile biase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 513-522.
- Gray, M. R., & Steinberg, L. (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574-587.
- Hammen, C., & Rudolph, K. D. (1996). Childhood depression. In E. J. Mash & R. A. Barkley (Eds.), *Child Psychopathology* (pp. 153-195). New York: Guilford.
- Kauffman, J. M. (2001).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Khaleque, A., & Rohner, R. P. (2002).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meta-analysis of cross cultural and inter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54-64.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 583-598.
- Ramsden, S. R., & Hubbard, J. A. (2002). Family expressiveness and parental emotion coaching: Their role i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0, 657-667.
- Salovey, P., & Sluyter, D. A. (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 New York: Basic Books.
- Smith, C. L., Calkins, S. D., Keane, S. P., Anastopoulos, A. D., & Shelton, T. L. (2004). Predicting stability and change in toddler behavior problems: Contributions of maternal behavior and chil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40, 29-42.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 1072-1085.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129-141.

1 차원고접수 : 2012. 10. 16.

수정원고접수 : 2012. 11. 21.

최종게재결정 : 2012. 12. 4.

The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on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Min, Jeong-Im

Iljuk preschool

Han, Sae-Young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on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age.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mprised 238 mothers whose young children were between 3 and 5-years of age and attending 2 private kindergartens and 4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Chunan and Ansung.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percentage, Primary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 t -test,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the SPSS 12.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ccording to the age of the children. Second, a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had significant effects on all kinds of the children's problem behaviors which were studied. In particular, a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had a stronger effect on aggression in 3 years old children than that in 5 year old children. Third, a mother's behavioral contro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ggression and withdrawal exhibited by 5 year old children. It was found that a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had negative effect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while behavioral control had positive effects on withdrawal and fear. Fourth, the interaction effect of a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was significant for depression and anxiety amongst 5 year old children and withdrawal amongst 3 year old children.

Key words : Psychological Control, Behavioral Control, Problem Behaviors, Young Children